

오라관광단지사업 공론화 추진되나

양영식 의원 '사업 여부 공론화 추진' 의향 질문에
원희룡 지사 "폭넓은 의견수렴... 승인 신중히 검토"
"2공항특위 갈등해소 역할 고맙지만 의회 자체 활동"

제주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등 추가적인 도민 의견 수렴과정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후속조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종 승인 단계에서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은 "향후 최종적인 자본검증위 의견서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시 제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는 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과연 한라산 자락에 6만 도시 건설을 추진할 만큼 제주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자본검증위의 결과만을 보더라도 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투자금액만 5조 2180억원에 달하는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교통, 하수, 쓰레기, 생태 등 환경총량 문제 발생 우려 등 제주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양 의원은 "오라 관광단지 추진은 역대 최대규모라는 제주 관광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듯 이에 대한 승인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화 추진 의향을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는 '더이상의 검증 작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종 검토의견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의견서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첨부해 의회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심사를 마친 이후 개발사업심의위 심의와 도민사회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이걸 공론화라고 불일수 있겠지만,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승인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29일 마지막 자본검증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검토의견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원 지사는 이날 문경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도의회가 지난 15일 구성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구성'과 관련 질문에 "갈등해소를 위해 의회가 역할을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특위 활동 협조 의향을 묻은 질문에는 "의회 자체의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급상향(현행 5급→4급)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직급 상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중앙부처 반대 의견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와 관련 12월 중 시범시를 통해 나타난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확대 실시방안을 추진해나가고, 임명과 선출에 주민자치를 더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른기자 ejoh@ihalla.com

말 방목 후 생태계 다양성 높아져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결과
출현식물 36→52종으로 증가
우량관목도 58→72%로 개선

한라산에 말을 풀어놓고 조릿대를 벌채했더니 출현식물이 늘고, 관목 생육상태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19일 오후 한라산국립생태학습관 시청각실에서 '4차년도 한라산 제주조릿대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조릿대 관리방안 연구는 환경연구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사업으로, 조릿대 분포 확장에 따른 한라산 고유식물 종 다양

성 유지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운영은 '동북아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말 방목 및 벌채를 통한 조릿대 제거효과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만세동산 기준으로 출현식물은 2016년 36종이던 것이 2017년 40종, 2018년 51종, 2019년 52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릿대 피압(被壓)으로 생육이 불량했던 관목들의 생육 환경도 2016년 우량·보통 58%에서 올해 72%로 크게 개선됐다.

반면 조릿대가 토사유출방지 및 가축 조사료 활용 효과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지만, 국립공원에 연구사업으로, 조릿대 분포 확장에 따른 한라산 고유식물 종 다양

지역여건 고려한 제주형 개발 추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주자치도, 18일 고시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시 기반시설을 포함해 환경과 경관을 고려하는 제주형 개발기준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기준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18일 고시했다.

이번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구역범위를 계획구역 경계로부터 각 200m 기준으로 설정했다.

건축물 규모는 전면도로 폭과 경관을 고려해 결정되며, 기존·허용·상한용적률에 따라 기존 4층 이하의 경우 5층까지 허용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 관리(재생)형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을 수립할때, 양호한 저층주택지를 보존한다. 또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도

시지역)도 지정해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인접지역과 어울리는 개발밀도 등을 설정한다. 타당성, 변경사유, 주변여건 구체적 분석결과 등을 제시할 경우 용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형 지구단위 계획(도시지역)은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형 계획, 물순환하수처리계획, 유니버설디자인, LID(저영향개발기법), 방재·안전계획(CPTED) 등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타운하우스 등 3만㎡ 이상(공동주택개발 10만㎡ 이상) 개발시 학교, 도로, 주차장, 수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상수도선 지하수 사용이 제한돼 수도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중수도, 저류시설·우수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 높이를 4층(15m)에서 5층(18m 이하)으로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동시완화가 가능해진다.

오른기자 sycho@ihalla.com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26일 오후 도선관위 대강당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제주도의회의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12월 17일부터 할 수 있고, 도의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거센 파도를 가르며...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푹 떨어진 18일 제주시 이호테우해변을 찾은 서퍼들이 활활한 날씨와 높은 파도에 이렇듯 이삼국기자를 당부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7면...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꿈꾸다 / 9면... 책 읽는 학교

"서키포를 맛보세요"



물오른 감귤



맛부터 향까지

노지감귤(10~11월) | 황금향(11~1월) | 한라봉(12~3월) | 레드향(12~3월) | 천혜향(1~3월)



속살부터 머리까지

살 오른 방어



겨울 서키포
돌담 너머엔 노란 감귤
알알이 맷히고,
거친 바닷속엔
통통 살 오른 방어가 산다

지금엔
서키포를 꼭 맛봐야 할 때!
'향기롭고, 흥겹게'